

연희지역 아파트 주부의 건강관리 실천의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조사연구

간호학회지, Vol. 8, No. 2, pp. 89~99, 1978.

김 인 숙

A. 결론

본 연구는 아파트지역주부의 건강관리실천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,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되는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, 효과적인 건강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관리실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건강교육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.

연구대상은 연희 3동 B 지구 아파트지역에 거주하는 600명의 주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적표집에 의하여 120명을 선정하고, 자료수집은 1978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작성된 질문지로 직접 면접하여 타기식방법으로 기록하였고, 통계적 분석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백분율, t -test,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.

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.

1. 건강관리실천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

영역별로 건강관리실천의 정도를 평점으로 평가한 후, 영역별로 평점의 최대 평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,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영역에서 84.1%로 가장 높았고, 기생충 관리에 관한 영역에서 52.5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, 건강관리실천의 전체평점에 대한 비율은 68.6%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.

2. 건강관리실천의 결정요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

영역별로 건강관리실천의 결정요인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, 가족원 상호관계가 18.33점으로 최대평점의 73.3%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고, 가족의 건강관리가 11.58%점으로 43.6%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, 결정요인에 대한 평점의 합계는 94.18점으로서 최대평점에 대한 비율은 65.0%에 해당하였다.

3. 건강관리실천과 일반적 특성간의 유의성

건강관리실천의 전체평점에 대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에 따른 대표값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, 자녀수, 매스메디아 접촉도의 특성에서 대표값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매스메디아 접촉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실천이 높다고 볼 수 있다.

4. 건강관리실천과 결정요인간의 다변수 상관성

건강관리실천과 결정요인과의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, 건강에 대한 관심도

는 건강관리실천을 43.6% 설명하고 있고($R=0.6602$, $R^2=0.4359$, $F=91.1678$, $p<0.001$), 가족의 건강관리가 더 첨가되면 51.2% 설명이 가능하였고($R=0.7158$, $R^2=0.5124$, $F=62.4653$, $p<0.001$). 가족원 상호관계가 더 첨가되면 53.7% 설명이 가능하였고($R=0.7324$, $R^2=0.5365$, $F=44.7509$, $P=0.001$), 의료기관이용 및 의료요구도가 더 첨가되면 55.1% 설명이 가능하였다.

3가지 결정요인으로서 건강관리실천을 53.6%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결과와 4가지 결정요인을 가지고 55.1%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비교해 볼 때, 건강관리실천에 이외의 요인 즉 신념, 동기, 가치관에 관한 것이 더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.

B. 제언

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.

1. 건강교육 사업의 주체가 주민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.
2. 건강교육을 효과있게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교육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 그 능력을 가진 자격있는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.
3. 건강교육 사업결과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.
4. 건강관리실천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구체적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.

부산시내 일부 혼전여성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비교 조사연구

최신의학, 21권 2호, pp. 115~125, 1978.

박 솔 화

저자는 1977년 6월부터 동년 9월까지 약3개월에 걸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미혼여성과 시내 대학 3개교의 3, 4학년 재학생 및 대학 졸업후의 미혼 여성 등 총 842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질문지 조사하였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조사대상의 연령은 19~24세가 대부분으로 고졸의 80%, 대학정도의 91.2% 이었고, 고졸의 79.4%, 대학정도 83.3%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도시 출신이었다.
2. 형제 자매수는 고졸이 평균 4.5명, 대학정도가 4.1명이었다.
3. 이상적 결혼 연령에 대하여 고졸의 74.7%, 대학정도의 79.0%가 24~26세라고